월요논단

아이의 심심함을 지켜 주자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요즘 아이들은 심심할 틈이 없어 보인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배울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다. 여기에 학원과 체험 활동, 태블릿 등으로 접하는 영상과 게임까지 더해지면 하루가 부족해 보일 때가 많다.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심심해"라고 말하곤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른들은 곧장 장난감을 꺼내 주거나, 영상을 틀어 주거나, 곁에 앉아 함께 놀아 주며 그 시간을 채워 주려 한다. 아이의 심심함은 어느새 어른이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심심함이 정말 그렇게 빨리 없애야 할 문제일까.

아이에게 새로운 배움과 경험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모든 빈 시간이 수업과 활동으로 채워질 때, 아이는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볼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수업과 활동이 긴 시간을 채운다면, 화면은 짧은 틈을 채운다. 기다릴 필요도, 생각을 이어 갈 필요도 없다. 버튼 하나면 곧바로 새로운 자극이 주어진다. 그래서 화면을 줄이자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면이 빠진 자리에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심심할 때마다 화면이 유일한 대답이 된다면, 아이는 지루함을 다루는 연습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심심함을 무작정 견디게 하자는 뜻은 아니다. 오래 지속되는 심심함은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방치된 시간은 외로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연구자들은 2024년 한 논평에서 아이가 지루함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워 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핵심은 지루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놀이와 이야기, 작은 시도로 바꿔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 과정은 대단한 결과물로 시작되지 않는다. 종이를 접었다 펴고, 블록을 쌓았다 무너뜨리고, 인형에게 이름을 붙이는 사소한 일에서 출발한다. 처음에는 어른에게 "뭐 해?" 하고 묻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방식으로 놀이를 만든다. 그 안에서 아이는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고쳐 보는 경험을 한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보여도 아이 안에서는 생각과 자기 조절의 힘이 자라고 있는 셈이다.

일상의 빈틈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남길 수 있다. 가정에서는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정해진 활동이 없는 시간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결과물이 분명한 활동만큼 자유 놀이와 느슨한 탐색의 시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역시 아이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원과 도서관, 마을 공간을 넓혀야 한다.

아이에게 심심할 시간을 남겨 준다는 것은, 어른이 모든 시간을 대신 채워 주지 않는 일이다. 빈틈없는 일정은 어른에게 잠시 안심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평생 살아가며 필요한 힘은 누군가가 짜 준 일정표를 따라가는 능력만은 아닐 것이다. 심심한 시간을 견디고, 스스로 놀고, 생각하고, 선택해 보는 경험 속에서 아이의 자기주도성은 천천히 자랄 수 있다.

사설

직무 기본 수칙조차 안 지킨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몰이해가 여실히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직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업무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2023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75건의 행정상 조치와 5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7823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가 가장 큰 지탄을 받는 사안은 관광극장 야외공연장 철거 과정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장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규정상 행정재산인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공연장 외벽을 철거하려면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벌이면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제주시가 계약자 선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2020년 이후 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도 소홀히 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태반이다.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다. 직무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도의회, 견제 기능 약화 우려 불식해야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제4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반기 의회를 이끌 진용은 사실상 갖춰졌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양당은 국민의힘에 농수축위원장 자리를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다수당이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지 않고 야당에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배분한 것은 협치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부 의장 경선에 따른 페널티가 원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의장 경선에 도전한 3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초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당 내부의 규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과 계파 간 이해관계가 원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아쉽다.

또 민주당 출신 위성곤 제주도지사에 이어 민주당 소속 도의장까지 탄생하면서 도정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선 9기 제주도정 앞에는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민생경제 회복,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정이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제13대 도의회는 원칙 있는 견제와 비판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열린마당

노후 아파트 화재, 경보음이 생사를 가른다

양 현 철
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소방관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초기 인지가 늦어 손쓸 새 없이 번진 화재 현장을 마주할 때다. 불이 난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결국 큰 비극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가 없는 세대라면 위험성은 더욱 크다. 초기 화재를 알려줄 안전장치마저 없다면 주민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족 중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어린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라면 더욱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세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은 바로 이 치명적인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라, 연기를 빠르게 감지해 비상벨을 울려줌으로써 한 가정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안전장치다.

집 안 구조에 맞춰 세대당 최대 3대까지 지원되는 감지기는 천장에 부착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율 설치가 힘든 가정은 소방대원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도와주고, 이후 고장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므로 주민 부담도 없다.

천장의 작은 감지기가 울리는 경보음은 화재라는 재앙 앞에서 우리 가족이 대피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지역축제, 다회용기로 환경보호까지"

다회용기 지원 하반기 지속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11개 축제에 다회용기 지원으로 친환경 축제 문화 확산에 나서는 등 '지역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 수요조사 통해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

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제주들불축제, 전농로 왕벚꽃축제 등 11개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약 19만개를 지원,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오수 발생을 저감하는 등 친환경 축제환경 조성에 기여.

시는 "6~15일 하반기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하반기 축제에도 다회용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청소년 PM 이용 안전하게"

○…여름방학을 앞두고 제주자치경찰단이 6일부터 2주간 도내 중·고등학교 14개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5일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픽시 자전거(브레이크와 변속 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상반기 '학교로 찾아가는 PM·교통안전 교육'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림중을 시작으로 제주시 9개교 2923명, 서귀포시 5개교 1077명을 대상으로 진행.

자치경찰단은 "방학 이후에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방문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심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박소정기자

부 고

윤평수 어머니 **전주이씨 병순(향년 90세)**께서 서기 2026년 7월 4일 10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7월 6일(월요일)
▶발인일시 : 2026년 7월 7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혼길장례식장 201분향실 (공항서로 131)
▶장 지 : 해안동 선영

아 들 윤평수 며느리 김은지
평일 강민자
평훈 김희선
딸 윤해경 사 위 김충호
은경

※ 연락처 : 윤평수 010-2684-5425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신동석(1956. 10. 11.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삼성로5길 24, 205호 (일도이동, 일도캐슬휘닉스아파트)

상기자는 2026년 4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6월 29일 제주지방법원 2026느단2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삼성로5길 24, 205호 (일도이동, 일도캐슬휘닉스아파트)

2026년 7월 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한 옥 자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